



김달현 바르톨로메오 <신부> 서울대포구 교육국 시청각 교리교재 연구실
정응모 에밀리오 <신부> 서울대포구 사무처 홍보실장

고
동
묘
지
·
사
례
기
통
·
예
제
기
간
의
사

<그림1> 지거 쾨더, 공동묘지, 유화

교회는 한해의 끝이 가까워 오는 11월을 위령성월로 정하여 우리보다 앞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차 우리 개개인이 맞이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기를 권합니다. 11월 위령성월을 맞이하여 지거 쾨더의 작품 가운데서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작품 세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작품 배경

화가 신부인 지거 콰더(지난 9월호 참조)는 성서의 주제를 표현주의 화법으로 즐겨 그립니다. 또한 그는 인간의 삶과 현대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독특하게 그리는 화가입니다.

〈공동묘지〉라는 작품은 시편 39장을 배경으로 하여 그린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음은 매우 낯설고 때로는 멀리 있는 것으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접하고 나면, 죽음이 결코 나와 멀리 등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나 직장에서의 은퇴 등을 통해서 죽음의 고통을 조금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결코 우리 삶과 등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안에 깊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 작품은 이러한 의미를 생각하게 해주는 그림입니다.

〈쓰레기통〉이라는 작품은 젊은 시절의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지거 콰더는 젊은 시절에 교사였습니다. 당시 작가는 아버지 세바스티안 콰더와 함께 살았는데, 보시다시피 부친의 이름 약자도 지거 콰더와 같은 SK입니다. 그의 부친은 쓰레기 청소차가 지나가는 목요일 이른 아침이면 항상 쓰레기통을 거리로 내다놓곤 했습니다. 등교하는 길, 지거 콰더는 자기 이름과 같은 약자가 적혀있는 쓰레기통 앞을 매주 한번씩 지나간 것입니다. 젊은 시절 쓰레기통을 지나치면서 느꼈던 것을 성서 묵상 중에 떠올리곤 하였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제키엘의 환시〉는 에제키엘 예언서 37장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창백한 해골이 무더기로 쌓인 채 제멋대로 서로 뒤엉켜 있습니다. 끔찍한 모습들에 대한 기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작가는 가장 근대사에 있었던 아우슈비츠 같은 공포의 수용소에서 본 모습들을 그림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활기 없는 철자가 지배할 때, 죽음의 경직성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렙(LEX)을 창백한 해골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그것이 가차없는 금지를 통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위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앞의 두 작품과는 달리 유리화이며, 그가 은퇴하여 현재 살고 있는 엘방엔(Ellwangen)의 성령 교회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밖에도 지거 콰더의 유리화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공동묘지

그림 읽기

▶ 장소

그림의 장소는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동묘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답답하리만큼 무덤들이 뻥뻥이 들어선 묘지입니다. 이 돌무덤들은 마치 사람처럼 웅크리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들 사이에는 빈틈도 없고 생기도 찾아볼 수 없으며 오로지 적막감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뒤쪽은 벽으로 막혀있어 울 안에 갇힌 셈입니다. 하지만, 그 담 너머로 검푸른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작가는 이 그림을 통해 하나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종착지가 결코 무덤일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이 이 지상에서 삶을 다한 후 돌아가는 곳 역시 창조주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고향이며 동시에 영원한 생명의 안식처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나 무덤은 마지막 단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처음이며 마침의 안식처입니다(그림1).

▶ 장식

어느 묘비에는 십자가 장식이 달려있고 어느 묘비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작가의 의도는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즉 죽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그림1).

▶ 그림의 틀

그림은 세로 직사각형입니다. 가로로 된 틀의 그림은 수평적 관계를 강조하는 반면에 세로의 틀은 종적인 관계, 즉 지상에서 영원으로 나아가는 것을 더 강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이런 측면에서 세로의 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림1).

▶ 그림의 심도

근경(近景)에서 원경(遠景)에 이르기까지 묘비들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으며 멀리 보이는 담과 1/5정도의 배경은 하늘로 채워져 있습니다(그림1).

▶ 빛의 근원

빛의 방향은 그림을 바라보는 관객 쪽에서 비추고 있는 듯 보입니다. 중앙을 한 사람의 커다란 그림자가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관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무덤의 벽에 이르기까지 큰 그림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 역시 죽음을 떠나 생각할 수 없음을 말하고자 한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그림자는 먼저 간 사람들만의 몫이 아니라 나에게도 연관된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그림1).

그림 묵상

▶ 죽음을 묵상하는 삶

현대인들에게 죽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가족을 이루어 살았고, 가까이에서 어른들의 임종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장례예식장이나 영안실에 안치되기도 합니다. 또한 무덤은 사람들이 사는 곳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타인의 죽음을 가까이 바라보고 자신의 죽음을 묵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오늘날에도 돌로 만들어진 가족 무덤이 도시 한 가운데 있거나 성당 마당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때로는 공동묘지가 공원처럼 이용되기도 하고 연인들이 만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성당에 오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마당에 있

는 무덤을 보면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항상 죽음을 생명으로 넘어가는 관문처럼 생각하고 평소에 죽음을 묵상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 묘비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위대함과 영광의 종착역일까요? 이곳에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크건 작건 상관없습니다. 종착역에 있는 인간은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지금 이곳에 묻혀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곳은 죽은 사람들의 영원한 안식처입니까, 아님니까?

묘비들이 탄식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 입을 열지 마세요. 당신의 섭리로 그렇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아마 묘비들이 소리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의 세월을 한 뼘 길이로 만드셨고, 내가 살아있는 시간도 하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란 한낱 입김처럼 사라지는데 아무 것도 아닌 일로 법석을 떨니다”. (케르트루트 비트만 편저, 《지거 쾨더의 성서에 관한 그림들》, 슈바벤 출판사, 60쪽 참조)

쓰레기통

그림 읽기

▶ 장소

쓰레기통들이 놓여있는 길 한 모퉁이입니다. 그림에서는 어스레한 광채가 이 쓰레기통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길바닥과 벽은 검은 색이 지배적으로 암울한 느낌을 더해주는 장소로서 표현되어 있습니다(그림2).

▶ 도구

각기 문자가 새겨진 4개의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양철 쓰레기통에 적혀있는 글자는 주인들의 이름 약자입니다. 맨 앞에 놓여 있는 쓰레기통에는 SK라고 검은 글씨가 적혀있는데 이는 세바스티안 쾨더의 약자로 화가인 지거 쾨더 자신을 표시하며 그림의 서명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바스티안 쾨더 가족의 쓰레기통은 이웃들인 오토 슈트라우프, 베르톨트 베츨러, 쇼일레 박사의 쓰레기통들과 함께 일렬로 서있습니다(그림2).

▶ 모양과 색

쓰레기통들의 크기는 다 다릅니다. 쾨더 가족의 쓰레기통은 낮으면서도 부피가 더 있어 보입니다. 베르톨트 베츨러(왼쪽에서 두 번째)의 쓰레기통은 길쭉하고 가장 높습니다. 이러한 제각각의 모양들이 각기 그 사람의 개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모두 동일한 회색을 씌므로써 쓰레기통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같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을 표현한 것입니다(그림2).

그림 묵상

▶ 영원한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

이 작품은 전도서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그림 속 쓰레기통의 의미처럼 전도서 저자는 일찍이 “모든 것은 헛되고 세상만사 속절없다.”고 하였습니다. 전도서 저자는 우리로 하여금 삶 속에 무엇이 참으로 중요한지를 깊이 숙고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머지않아 쓰레기통에 던져질 헛된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항상 자신을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 영원한 가치가 무엇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늘 자신에게 되물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에게 유한한 삶 속에서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림2> 지거 쾨더, 쓰레기통, 유화

▶ 종이 조각

한 장의 종이 조각이 작가의 쓰레기통 위쪽에 나와있고, 쓰레기통 앞쪽 길바닥에도 종이 조각 하나가 놓여있습니다. 작가는 이 종이 조각에 대해서 학교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까지 깊은 묵상을 하곤 했습니다. “구상을 적은 종이, 찢어진 그림, 포기한 이념, 실패한 시도는 아닐까? 창조된 것 중에서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작가는 쓰레기통을 지나치면서 시간이 흘러도 남아있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였다 고 합니다. ‘어떤 서류와 스케치 등이 버려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떤 구상, 이념, 계획들이 실현되고 있나? 어떤 연구 보고서나 메시지가 후대의 사람들에게 계승될 수 있나?’ 를 스스로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케르트루트 비트만 편저, 《지거 쾨더의 성서에 관한 그림들》, 슈바벤 출판사, 60쪽 참조)

그림 읽기

▶ 색깔

이 작품은 에제키엘 예언자의 환시를 다룬 작품으로 죽음과 생명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에제 37장 참조). 생명을 위협하는 밤과 사막의 모래를 나타내는 노란색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창백한 해골이 서로 뒤엉켜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황토색 옷을 걸친 에제키엘 예언자는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있습니다. 그 자신도 추방된 자 가운데 한 명으로서 비참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림 왼쪽에는 하느님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생명을 상징하는 푸른색으로 바탕을 칠하였습니다(그림3).

▶ 구도

그림 가운데를 보면 하늘로부터 성령의 빛이 예언자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언자의 얼굴은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에제키엘이 향하는 위쪽으로 뼈들이 일어서고 있는 모양이 삼각형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숨결은 죽은 자들의 뼈를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묶인 손들이 풀리고 해골에는 살이 붙어 얼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사지가 있는 몸으로 다시 완성되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몸은 지상으로부터 하늘 높은 곳으로 드높여지고 있습니다(그림3).

▶ 자세

예언자의 한 손은 두루마리를 받쳐들고 다른 한 손은 펜을 들고 그가 성령에 이끌려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속에 숨을 불어넣어 너희를 살리리라.”

자세히 보면 그의 눈은 감은 상태입니다. 이제 그는 육체의 눈으로 이 현상들을 바라보



〈그림3〉 지거 페더, 에제키엘의 환시, 유리화, 엘방엔의 성령교회



<그림4>

지 않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그림4).

▶ 도구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들 틈새로 예언자가 약속하는 미래가 보입니다. 거기에는 식탁이 있고, 가득찬 술잔과 찢개진 빵을 든 사람들이 식탁 주위에 앉아있습니다. 그 당시의 인간들과 오늘날의 인간들, 젊은이들과 늙은이들, 건강한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멀리 있는 사람들이 식탁 주위에 앉아있습니다.

머지않아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잔치에 초대받아 영원한 생명의 빵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시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땅 끝에서 와 하느님 나라의 식탁에 앉게 될 것이다.’는 말씀의 실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5>

그리고 생명의 성령은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고, 버림받은 자들의 위로자시며 인간들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셔서 죽음에서 깨어나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뼈들처럼 죽어있는 상황에서 공동체를 생기 있게 만드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그림5).

그림 묵상

▶ 죽음이 끝은 아니다

지금부터 10년쯤 전에 50대 남자에게 세례성사와 병자성사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예비자 교리를 받던 중 몸이 불편하여 병원을 찾았는데 불행하게도 간암 말기였습니다.

그는 중간에 교리도 나올 수 없게 되었고 집에서 누워 하루종일 병마와 싸워야 했습니다. 부활을 일주일 앞둔 밤에 가족들로부터 임종이 가까워왔다는 전화를 받고 그분에게 갔습니다. 그는 바짝 마른 몸으로 누워있었습니다. 육신은 지쳐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맑았고 눈도 빛났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에게 세례성사와 병자성사를 주었습니다.

예식이 다 끝나자 그분이 제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신부님, 늦게서야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일찍 알았다더라면 제가 훨씬 더 착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이지요, 이제라도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신부님, 먼저 떠납니다. 이제 천국에서 다시 뵈어요.”라며 그는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지어보였습니다.

그날 밤늦게 그는 세상을 떠나 하느님 품에 안겼습니다. 가족들은 그분이 참으로 평안한 상태에서 임종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그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천국으로 향하는 열차를 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죽으면서도 하느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처럼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서 다시 뵈어요.” 하며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서와 교회의 가르침에 의하면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마지막 종착지가 아닙니다. 즉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때가 되면 이 세상에서 생을 마치지만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즉 우리 존재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땅 속에서 소멸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요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